

보도설명자료 (13. 9. 2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한·베트남 FTA, 대기업은 이익·농가는 피해” 관련
보도에 대한 설명 (13.9.23, 경향신문)

1. 보도내용

- 한·베트남 FTA 체결이 대기업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농어민에게는 피해를 안겨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바, 한·베 FTA 체결 관련 광범위한 여론 수렴 및 피해 분야의 대책마련이 필요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

- 한·베트남 FTA 협상 추진 관련 양국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품목 관련 논의를 개시하지 않아, 특정 분야에 대한 혜택 및 피해 여부를 예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임
- 정부는 추후 베트남과의 FTA 협상에서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협상에 임할 계획임

※ 관련문의

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최진원 과장(02-2110-5201)

김정윤 사무관(02-2110-5204)